

# 이제 5·18 30주년을 준비하자

빚 분열·갈등...주체없는 기념행사

## ‘갈라진 광주’ 빛바랜 민주성지

5·18민주화운동 29주년 기념행사가 18일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을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번 29돌 기념행사는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 등을 둘러싼 5·18 관련 단체 간 갈등과 내분, 이로 인한 준비 부족으로 파행과 차질을 겪었다. 시민들의 반응도 냉담했다. ‘그들만의 5·18’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광주일보는 한 세대가 교체되는 30주년을 앞두고 5·18의 현주소와 과제를 세 차례로 나눠 진단해본다.

### 도청 별관 대립...5·18 단체 ‘반쪽 행사’ 시민들 외면 전야제·기념식 열기 시들

갈등과 분열 속에 또 5월은 갔다. 1980년 5월 당시 민주화를 위해 산화한 영령들의 넋을 기린 기념식에서 ‘살아남은 자(者)’들은 부끄러움으로 다시 내년을 기약했다.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문제를 둘러싼 5월 관련단체 간 분열과 시민·사회단체와 5월 관련단체 반목 등 분열과 갈등 속에 주체 없는 5월 행사가 치러졌기 때문이다. ‘민중의 뜻대로 다시 오월이다’라는 광주 민주화운동 29주년 슬로건은 빛이 바랬고, 시민들의 참여도 저조했다.

기념식 행사장은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빈 자리에 넘쳐났고 ‘소녀 그리고 5월의 불꽃’을 주제로 열린 전야제(17일) 행사장은 1만 명 이상 모여 거리를 가득 메웠던 예년과 달리 4천여 명이 참석해 한산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5·18 시민 참여 한마당’ 행사가 들연 취소되는 등 민중의 뜻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특히 5·18 기념행사 대부분이 현 정부 정책 비판 등 시국 이슈와 관련된 내용으로 치러져 5월 행사의 순수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예초 5·18 행사는 5월 항쟁의 의미와 상징성, 역사성을 알리는 것을 큰 비중으로 놓고 열렸으나 이번 행사는 이 같은 기능이 축소되고 대북정책 반대와 MB악법저지 등 굵직한 시국현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3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된 행사도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행사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똑같은 진행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다.

이와 함께 유족회 등 5월 관련단체 주관으로 열린 추모제는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국립 5·18 민주묘지가 아닌 옛 전남도청 별관에

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등 ‘그들만의 행사’로 치러졌다. 광주 인권상 시상식과 국제 평화포럼은 5월 관련 단체 간 갈등으로 행사 장소와 일정이 갑자기 바뀌는 등 혼선을 빚었다.

29주년 기념행사위원회도 옛 전남도청 별관철거 문제,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5·18 행사를 축소하고 돌연 취소하는 등 오락가락 행사를 펼쳐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시민 박오(35·동구 지산동)씨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무성의한 5·18 기념행사는 올해가 처음”이라며 “5월 정신이 대동 화합의 정신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문제 등 각종 현안과 맞물려 갈등의 장으로 변질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5월 관련단체 등은 5·18 3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사)5·18 부상자회 신경진 회장은 “30주년을 앞두고 이번 5·18 행사가 축소돼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기념행사는 행사일 뿐”이라며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다. 3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29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안성례(여·71) 상임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졸속으로 치러졌다. 광주가 부끄럽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30주년 기념행사를 원활히 치르기 위해선 단체 간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29주년 기념식에서 한복 차림의 여성이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살풀이 춤을 추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8일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29주년 기념식에서 박주선의원이 5·18유족회원들의 함의속에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식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추태 얼룩진 5·18 기념식

박주선 의원, 5·18 유족들에 역설잡혀

18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5·18 유족들이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다며 민주당 박주선(광주 동구) 최고위원의 역설을 잡는 등 추태를 벌였다.

유족 등 5·18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열린 5·18 민주화운동 29주년 기념식 내내 행사장에서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반대’ 등이 써진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벌이다 기념식이 끝나자 박 최고위원에게 물러가 집단으로 항의했다.

이들은 “왜 도청별관 철거에 일방적으로 합의했느냐”고 따졌으며 이 과정에서 박 최고위원은 역설을 잡는 휘청거리기도 했다.

유족 등에게 5분여간 둘러싸였던 박 최고위원은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고 아무말 없이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그동안 박 최고위원은 도청 별관 보존을 놓고 갈라선 5·18 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중재하는 데 앞장서왔다.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은 “5·18 기념식에 전국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놓고 손님을 앞에서 역설잡이를 하는 것은 주인답지 못한 불성사나운 행동이다”며 지역 현안마다 갈등을 빚고 있는 오늘의 ‘오월 광주’의 모습을 한탄했다.

앞서 17일에는 민주당 광주 남구지역위원회 당원들이 5·18묘역을 참배하고 나오는 정세균 대표에게 물러가 “강은태 의원을 받아들이지 말라”며 거칠게 항의하고 당원 간에 몸싸움을 벌이는 등 ‘민주성지’인 5·18묘역에서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申 대법관 재판 개입 위법 행위”

광주고법 등 전국 8개법원 판사회의의 반발 확산

신영철 대법관의 ‘축발 재판’ 논란과 관련, 소장과 중심의 판사회의가 18일 광주고등법원 등 전국 8개 법원에서 잇따라 개최되는 등 사법부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배석판사 9명은 이날 오후 6시10분께 고법 3층 조정실에서 2시간 동안 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을 ‘위법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날 판사들은 “신 대법관은 사법권의 핵심 가치인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침해했다”며 “이는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판사들은 회의가 끝난 뒤 논의 내용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전국 5개 고등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열리는 판사회의라는 점을 의식한 탓인지 판사들의 회의장 입장과 회의 과정 등 전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졌다.

앞서 대정고법 배석판사 11명도 이날 오찬을 함께 하면서 “신 대법관의 행위는 재판 개입이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판사회의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국 지방 소장판사들의 판사회의도 잇따라 개최돼 신 대법관 사태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부산지법 등 7개 지방에선 소장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지법 단독판사들도 19일 오후 6시 지방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다.

부산의 경우 부산지법과 가정지원 단독판사 52명 가운데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의 재판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재발방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7 광주일보 추천 제주도 여행 상품!

세찬제1,2번 비행기편을 신 제주도 - 새로운 워터파크로 더욱 저리하게 다녀오세요!

여시아나 항공과 함께 하는 즐거운 제주도 여행

- 항공 1, 제주도, 숙박을 지원해 **219,000원** -
- 항공료: 2009.05.14 - 07.14 까지, 제주항공 항공기편

새롭고 다양한 체험위주의 여행상품

- 01. 제주항공(08:30) - 제주항공(19:30) 2일 2박 3일 여행
  - 제주도 2박 3일 여행 패키지 (항공료 포함)
  - 제주도 2박 3일 여행 패키지 (항공료 포함)
  - 제주도 2박 3일 여행 패키지 (항공료 포함)
- 02. 제주항공(08:30) - 제주항공(19:30) 2일 2박 3일 여행
  - 제주도 2박 3일 여행 패키지 (항공료 포함)
  - 제주도 2박 3일 여행 패키지 (항공료 포함)
  - 제주도 2박 3일 여행 패키지 (항공료 포함)
- 03. 제주항공(08:30) - 제주항공(19:30) 2일 2박 3일 여행
  - 제주도 2박 3일 여행 패키지 (항공료 포함)
  - 제주도 2박 3일 여행 패키지 (항공료 포함)
  - 제주도 2박 3일 여행 패키지 (항공료 포함)

● 제주항공(08:30) - 제주항공(19:30) 2일 2박 3일 여행 ● 제주항공(08:30) - 제주항공(19:30) 2일 2박 3일 여행 ● 제주항공(08:30) - 제주항공(19:30) 2일 2박 3일 여행